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및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가 간호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지선[†] · 김현주 · 박창승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2018년 10월 16일 접수: 2018년 12월 17일 수정: 2018년 12월 21일 채택)

Influence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re Basic Nursing Skills Achievement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ee-Seon Yi[†] · Hyun-Ju Kim · Chang-Seung Park

Department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Received October 16, 2018; Revised December 17, 2018; Accepted December 21, 2018)

요약 :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학부과정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일 대학 간호학과의 4학년 학생 227명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판적 사고성향,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에 따른 간호수행능력은 independent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고, 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에는 비판적 사고성향의 지적공정성과 핵심기본간호술 난이도 중 및 하의 성취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생의 지적공정성과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를 높이는 한편 난이도 상의 성취도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 핵심기본간호술, 비판적 사고, 간호수행능력, 간호학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nd to contribute to the education plan of the undergraduate course for the enhancement of clinical competenc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27 students in the 4th grade in the college of nursing. Clinical competence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re basic nursing skills achievement was conducted by an independent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linear regression model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The results showed that intellectual fairness of critical thinking, achievement in middle and low level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had an effect on

[†]Corresponding author
(E-mail: yijsn@chu.ac.kr)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and the higher score had the better clinical compet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tellectual fairness and core basic nursing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and to prepare an educational program to develop the achievement of high level.

Keywords : Core Basic Nursing Skills, Critical Thinking, Clinical Competence, Nursing Stud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33.9%로, 전체 이직률 12.4%보다 높다[1]. 간호사의 이직은 여러 측면에서 기존 간호 인력의 전문성 발전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2]. 특히 신규간호사의 이직은 새로운 간호사를 채용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신규간호사의 이직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 하나가 업무 능력의 한계이다[3]. 업무 능력의 한계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업무 사이에 괴리감을 경험하면서 준비되지 못한 미숙한 자신을 경험하고 동기들과 프리셉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3].

간호사는 다양한 사회, 문화, 종교적 배경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간호를 수행하고 있으며, 삶의 질 추구하고 함께 업무 영역도 확대되었다[4]. 이에 실무현장에서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요구하고 있고[5], 간호대학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현장에서는 졸업간호사들의 임상수행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고, 대상자는 간호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6].

간호사는 실무현장에서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대상자의 간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업무의 대부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현장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인 판단과 논리적인 의견제시 등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요구하고 있다[7]. 따라서 졸업생들의 실무현장 업무와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특성을 가지는 간호

대학의 학부과정에서는 간호학생의 졸업 후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비판적 사고와 업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규간호사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 학교와 실무의 차이에서 현실충격을 경험하며 업무 능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8-10], 특히 신규간호사가 포함된 경력 3년 미만 간호사는 전문지식 및 기술 부족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11]. 이러한 실정으로 간호교육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핵심기본간호술을 비판적 사고와 함께 교육의 중요 요소로 다루고 있다[6].

핵심기본간호술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KABON])에서 임상수행능력 향상 및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간호사 업무 중 수행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간호술로 지정한 20가지 항목으로[12], 간호사 양성 교육과정 중 필수적으로 학습하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핵심기본간호술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통하여 수행자신감을 높이고 업무스트레스를 낮추어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6]. 따라서 실무현장의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과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핵심기본간호술이 실무현장 투입 전에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6].

이렇게 임상현장의 실무능력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와 핵심기본간호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시행되었지만, 주로 핵심기본간호술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13-15]. 또한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은 현장의 요구와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고, 핵심기본간호술에서 지정한 난이도별로 구분하여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학부과정의 교과과정을 모두 학습한 일 대학 간호학과 졸업시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핵심기본간호술, 간호수행능력을 확인하고, 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간호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학부과정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 간호수행능력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수행능력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및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와 간호수행능력의 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 간호수행능력을 조사하고, 간호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대상자 240명 중 22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거나 누락이 된 자료가 없어 조사에 참여한 모두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조사에 대한 공지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가 스스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조사는 2016년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C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044348-20160129-HR-005-05)을 받아 진행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 [16]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개발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7개 영역 27문항이다. 각 영역과 문항은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적열정/호기심(intellectual passion/curiosity):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 사건의 원인과 설명을 구하기 위하여 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등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세
- 신중성(discretion): 타당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심사숙고하는 태도
- 자신감(self-confidence): 자신의 추론과정을 믿고,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려는 태도
- 체계성(systemicity):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
- 지적공정성(intellectual fairness): 열린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의 의견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태도
- 건전한회의성(sound doubt):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며, 자신과 타인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특성
- 객관성(objectivity):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태도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oon [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2$ 이었다.

2.3.2.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는 한국간호인증평가원에서 권고한 핵심기본간호술 20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난이도별 구분은 제4판 간호교육인증평가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상: 피내주사, 정맥 수액 주입, 수혈요법, 유치도뇨, 기관내 흡인, 기관절개관 관리
- 중: 근육주사, 피하주사, 간헐적 위관영양, 단순도뇨, 배출관장, 수술 전 간호, 수술 후 간호,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관리,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 하: 활력징후 측정, 경구투약, 입원관리하기, 말초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적용, 비강캐놀라를 이용한 산소요법

각 문항은 학생 자신이 성취하였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난이도별로 평균을 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의 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3. 간호수행능력

간호수행능력은 Park 등[17]이 일반간호사의 인사고과를 위해 개발한 도구의 문항을 개발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4개 영역 30 문항으로 간호제공기능 20문항, 간호지원기능 3 문항,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기능 2문항, 간호사의 태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해당 없음과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로 측정하며, 인 사고과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한 산출식에 의해 평정점수를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수행능력은 평정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 등[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4$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60$ 이었다.

2.4.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양측검정 $p < .05$

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비판적 사고성향,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 및 간호수행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수행능력은 independent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고, 비판적 사고성향,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와 간호수행능력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학생이 91.2%로 남학생 보다 많았고, 전공 만족도는 3.35점이었으며, 학생멘토 경험은 없는 경우가 65.9%로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 교육목표는 인지하지 않은 경우가 51.5%로 인지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학습성과는 인지하는 경우가 55.2%로 인지하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Table 1).

3.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핵심기본 간호술 성취도 및 간호수행능력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총 평균은 5점 만점에 3.45점이었다. 이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객관성 3.68점, 지적공정성 3.61점, 자신감 3.48점, 지적 열정/호기심 3.43점, 건전한회의성 3.41점, 체계성 3.33점, 신중성 3.2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의 총 평균은 5점 만점에 4.04점이었다. 이를 각 난이도별로 살펴보면, 하 4.33점, 중 4.01점, 상 3.90점 순으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7)

		N	%	M±S.D.
Gender	Male	20	8.8	
	Female	207	91.2	
Major satisfaction				3.35±0.85
Mentor experience	No	149	65.9	
	Yes	77	34.1	
Awareness of educational goals	No	103	51.5	
	Yes	97	48.5	
Awareness of learning outcomes	No	86	44.8	
	Yes	106	55.2	

높게 나타났다. 간호수행능력은 총 100점 만점에 평균 75.77점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수행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 학생멘토 경험, 교육목표 인지, 학습성과 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을 살펴보면, 간호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고($r=.500, p<.001$), 학생멘토 경험이 있는 경우($p=.026$), 교육목표를 인지하는 경우($p=.017$), 학습성과를 인지하는 경우($p=.010$)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및 핵심기본 간호술 성취도와 간호수행능력의 관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와 간호수행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지적호기심($r=.296, p<.001$), 자신감($r=.370, p<.001$), 체계성($r=.310, p<.001$), 지적공정성($r=.343, p<.001$), 건전화회의성($r=.232, p<.001$), 객관성($r=.331, p<.001$)이 간호수행능력과 약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기본 간호술 성취도는 난이도 상($r=.535, p<.001$), 중($r=.580, p<.001$), 하($r=.561, p<.001$) 모두 간호수행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Achievement, Clinical Competence of Subjects (N=227)

	M±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45±0.43
Intellectual / passion	3.43±0.60
Discretion	3.24±0.51
Self-confidence	3.48±0.57
Systemicity	3.33±0.57
Intellectual fairness	3.61±0.58
Sound doubt	3.41±0.56
Objectivity	3.68±0.56
Core basic nursing skill achievement	4.04±0.59
High	3.90±0.69
Moderate	4.01±0.59
Low	4.33±0.60
Clinical competence	75.77±10.16

Table 3.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7)

		Clinical competence		
		M±S.D	t/F/r	p
Gender	Male	76.77±10.41	0.460	.646
	Female	75.67±10.15		
Major satisfaction		3.35±0.85	0.500	<.001
Mentor experience	No	74.65±9.79	2.244	.026
	Yes	77.85±10.63		
Awareness of educational goals	No	74.63±9.01	2.406	.017
	Yes	78.04±10.84		
Awareness of learning outcomes	No	77.13±9.33	2.615	.010
	Yes	77.92±10.43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re Basic Nursing Skill Achievement and Clinical Competence (N=227)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422**	1									
3)	.711**	.271**	1								
4)	.638**	.201**	.611**	1							
5)	.657**	.401**	.663**	.441**	1						
6)	.511**	.196**	.450**	.468**	.450**	1					
7)	.548**	.377**	.580**	.526**	.616**	.460**	1				
8)	.232**	.083	.264**	.246**	.154*	.175**	.140*	1			
9)	.249**	.088	.325**	.285**	.207**	.177**	.186**	.891**	1		
10)	.224**	.089	.276**	.226**	.250**	.149*	.300**	.679**	.781**	1	
11)	.296**	.129	.370**	.310**	.343**	.232**	.331**	.535**	.580**	.561**	1

1)Intellectual/passion 2)Discretion 3)Self-confidence 4)Systemicity 5)Intellectual fairness 6)Sound doubt 7)Objectivity
 8)Core Basic Nursing Skills(High) 9)Core Basic Nursing Skills(Moderate) 10)Core Basic Nursing Skills(Low)
 11)Clinical Competence
 *p<.05 **p<.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Variables Predicting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N=227)

Variables	B	B	t(p)	VIF
(Constant)	1.13		4.80(<.001)	
Intellectual Fairness	.19	.23	4.14(<.001)	1.07
Core Basic Nursing Skill(moderate)	.31	.37	4.37(<.001)	2.53
Core Basic Nursing Skill(Low)	.17	.20	2.31(<.001)	2.58

R=.628 R²=.394 Adj. R²=.386 F=46.85 (p<.001)

3.5. 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간호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부 요인 및 핵심기본간호술의 난이도별 성취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은 더미처리를 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였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F=46.851, p<.001이었고, 설명력은 38.6%이었다.

분석 결과,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에는 비판적 사고성향의 지적공정성(p<.001),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의 난이도 중(p<.001) 및 하(p<.0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각 살펴

보면, 비판적 사고성향의 지적공정성,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의 난이도 중 및 하 3가지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학부과정의 교육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45점으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 등 [18]의 연구 3.39점보다 높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Oh와 Kim [19]의 연구 3.50점보다 낮았다.

이는 비판적 사고가 다양한 사례에서 근거 기반의 추론을 하면서 전문성과 함께 높아지는데[20],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학부과정을 모두 마친 졸업 시점의 학생들이어서 평균 연령과 임상 사례의 경험이 일 대학 간호과 학생 전체보다 많고,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상위 2개 영역은 지적 공정성과 객관성이었고, 하위 2개 영역은 체계성과 신중성으로 나타나 간호학을 대상으로 한 Jeong 등[18]의 연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와 Cho [21] 및 Oh와 Kim [19]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간호사가 환자 간호에 충실하기 위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다른 의료진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정한 평가를 하려는 성향이 높아[19], 간호학생의 교육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2, 23]. 한편, 신중성과 체계성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심사숙고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의 핵심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결론에 도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신중성과 체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고, 학습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8]. 또한 이 결과는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경우가 동일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간호현장의 업무 환경이나 상황 등에 대한 탐색 뿐 아니라[19], 간호학의 교육적 측면에서 평가와 점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는 평균 4.04점이었고, 난이도별로는 하, 중, 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핵심기본간호술은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수행자신감으로 조사하여 성취도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어렵지만 기본간호술의 수행도와 자신감은 정적 상관성이 있고[6],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경험이 많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24]를 토대로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 등[24]과 신규졸업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25]의 연구에서 성취도가 낮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고, 성취도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없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Kim 등[25]과 Johns [26]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술기는 실습을 통해 학습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실습병원의 간호술기 임상지도를 통해 간호수행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안전의 위험성이 낮은 비침습적 항목들

은 지도자의 감독하에 직접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직접적인 수행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간호수행능력의 평균은 75.77점이었다. 이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등[17]의 연구에서 나타난 82.7점보다 낮지만 근무경력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서 74.3점이라고 한 것보다는 높았다. Park 등[17]의 연구에서 간호수행능력은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근무경력이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간호수행능력 점수는 Park 등[17]의 연구에서 근무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간호사의 경우보다 높았다. 이는 평가자가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간호교육인증평가에 대비하여 핵심기본간호술 및 다양한 실습을 통해 간호업무의 전반적인 학습으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Park 등[17]의 연구에서 간호수행능력은 학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과정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에는 비판적 사고성향의 지적공정성과 핵심기본간호술 난이도 중 및 하의 성취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의문이 생겼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근거를 토대로 행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23],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지적공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수행능력이 간호 실무현장에서 다양한 직종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환자 및 가족에게 맞는 개별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직업적 특징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되며[4], 여러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과 타인의 견해를 편견 없이 듣고 수용하며, 자신의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을 통해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27].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ang 등[28]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전문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핵심기본간호술 난이도 중과 하에 포함되는 경구투약, 격리실 출입 시 보호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도 핵심기본간호술 난이도 중과 하의 경우가 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상자들이 핵심기본간호술을 통해 다양한 사례에서 난이도가 중과 하에 포함되는 술기를 직접 수행하면서 실무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29].

한편, 이 결과는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핵심기본간호술이 간호사 양성 교육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학습하고 성취되어야 하는 항목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핵심기본간호술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술기가 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Han 등[24]의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난이도 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대부분 수행자신감이 낮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난이도 상에 포함되는 항목이 정맥수액주입, 수혈요법, 유치도뇨, 기관절개관 관리 등으로 환자의 안전과 관련성이 크고, 침습적인 술기가 대부분이어서 학생실습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5]. 따라서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본간호술의 난이도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상실습 수행도와 교육방법 및 전공만족도, 멘토경험, 교육목표의 인지, 학습성과의 인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의 졸업시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임상현장의 기준을 토대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였고, 향후 실무현장의 기준에 맞추어 간호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조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부과정에서는 간호학생의 지적공정성과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를 높여야 하고, 핵심기본간호술 난이도 상의 성취도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임상실습 수행도와 교육방법, 전공만족도, 멘토경험, 교육목표의 인지, 학습성과의 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E. J. Jung et al,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Placement,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3).
2. K. E. Kim,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nurse's intension to leave the job",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04).
3. G. L. Kim, H. J. Lee, Y. S. Cho, M. H. Kim, "The experience of turnover decision making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14, No.1 pp. 23-33, (2013).
4. M. J. Shin, Y. S. Kang, N. S. Ha, B. H. Kong, I. S. Kim, Y. M. Hong, et al, *History & Philosophy of Nursing*, Hyunmoonsa, (2009).
5. J. W. Distler,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competenc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student-centered teaching strategies in an advanced practice nurse curriculum",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7, No.1 pp. 53-59, (2007).
6. S. S. Bang, I. O. Kim, "Relationship among essentials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performance, stress from work and work capability of new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Vol.20, No.4 pp. 628-637, (2014).
7. J. A. Park, B. J.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9, No.6 pp. 840-850, (2009).
8. S. Y. Hwang, E. J. Lee, D. M. Na, G. S. Lee, G. S. Sun, C. S. Lee, "The clinical experiences of newly-qualified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8, No.2 pp. 261-271, (2002).
9. J. Y. Kim, I. S. Kim, "Experience of preceptorship for newly employed nurses",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0, No.2 pp. 75-88, (2005).

10. J. H. Park, I. S. Chun, "The lived experience of newly employed nurses : phenomenological study : Phenomenological study", *Qualitative Research*, Vol.9, No.2 pp. 99-110. (2008).
11. E. S. Byu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wly graduated nurses' intention to turnover and job stress/satisfaction"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9).
12.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Core basic nursing skill items, Author, 2017,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Available From <http://www.kabon.or.kr/HyAdmin/upload/goodFile/120120319112302.pdf>, (2018, Aug).
13. J. S. Park, M. J. Choi, S. Y. Jang, "The effects of preclinical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on nursing students' confidence in nurs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1 pp. 75-85, (2015).
14. Y. R. Yeom, K. B. Choi, "Effects of the reeducation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clinical stres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confidence in nursing skills of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3, pp.283-293, (2016).
15. S. N. Park, S. K. Lee, "Factors influencing basic nursing skil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5, No.1, pp.6-13, (2008).
16.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In Nursing*[dissertation], Seoul: Catholic University, (2004).
17. K. O. Park, S. A. Park, S. H. Park, E. H. Lee, M. A. Kim, W. H. Kwag, "Revision of performance appraisal tool and verification of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7, No.1, pp.70-80, (2011).
18. G. S. Jeong, K. A. Kim, J. A. Seoung, "The effect of learning styl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3, pp.413-422, (2013).
19. I. S. Oh, J. H. Kim, "Impa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on nurses'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3, pp.304-315, (2016)
20. C. Martin, "The theory of critical thinking of nursing",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23, No.5, pp.243-247, (2002).
21. H. R. Choi, D. S. Cho, "Influence of nurses' performance with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proces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17, No.3, pp.265-274, (2011).
22. M. H. Sung, O. B. Eum,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5, No.1, pp.26-36, (2009).
23. Y. S. Kim, J. Kim, M. M. Park, "Factors influencing competency in evidence-based practice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1, No.2, pp.143-53, (2015).
24. A. K. Han, D. S. Cho, J. S. Won, "A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and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s in nursing practicum among final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1, No.2, pp.162-173, (2014).
25. Y. H. Kim, S. Y. Hwang, A. Y. Lee, "Perceived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ew graduate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1, pp.37-46, (2014).
26. C. Johns, "Clinical supervision as a model for clinical leadership", *Journal of nursing*

- management*, Vol.11, No.1, pp.25-35, (2003).
27. V. Dearmon, R. J. Graves, S. Hayden, M. S. Mulekar, S. M. Lawrence, L. Jones, et al, "Effectiveness of simulation-based orientation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preparing for their first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52, No.1, pp.29-38, (2012).
28. E. H. Chang, M. H. Mo, E. H. Choi, "A comparative study on perceived importance and frequency of core nursing skills between general and special war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2, pp.1264-1272, (2015).
29. J. A. Park, B. J.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9, No.6, pp.840-850, (2009).